

# 청년 만원주택 '청춘★별채' 공급 확대

## 월 1만 원 임대료... 66호 입주 완료 안정적 지역 정착... 주거 안정 도모

복정권 기자

전주시가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청년만원주택인 '청춘★별채'공급을 확대한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11월 중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을 통해 청춘★별채 신규 12호 입주자를 공개 모집한다.

상반기 모집 이후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지속적인 문의에 따라 10월 한 달간 청년매입임대주택의 퇴실 세대를 보수·정비해 입주회전율과 공급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지난 2월 입주자 모집 당시 52.9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청년층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이번 모집 역시 높은 참여가 예상되는 가운데 청년 주거 수요 해소 가 기대된다.

이와 관련 '청춘★별채'는 기존 시세의 40% 수준이던 청년 매입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월 1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낮춘 전주시 대표 청년정책이다. 입주 대상은 전주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 예정인 19세에서 39세 무주택 미혼 청년 중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 기간은 2년이며, 무주택 요건 충족 시 최대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또, 입주 중 결혼한 경우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 연장이 가능하다.

청춘★별채는 시가 직접 공급·운영하는 만

금 전월세 사기 등의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대학교 주변 등 청년 거주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다. 이사 부담을 최소화하고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세대별로 세탁기와 냉장고, 에어컨 등 필수 가전제품도 설치돼 있다.

현재까지 총 66호가 입주 완료됐으며, 오는 2028년까지 공급 규모를 총 210호까지 늘린다는 구상이다.

앞으로는 청년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하도록 신축 주택 위주로 공급할 방침이다.

김은주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리며 미래세대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전주형 청년특화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청년 정착의 마중물이자 활력 넘치는 전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원광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WON+PBL' 교육혁신

원광대학교 교육혁신원 WON+PBL센터는 익산, 전주에서 열린 학술대회와 과학축전에 참여하며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혁신을 실천했다.

먼저 지난 17일 익산 한국식품산업융러스터진흥원에서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대주제로 열린 '2025 한국자치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지역혁신과 고등교육

세션에서 이완범 센터장과 최유진 연구교수가 '앵커 기관(Anchor Institution)으로서 지역대학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통합 원광대학교 WON+PBL을 주제로 사례를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지역사회 연계 문제기반학습과 사회공헌학습을 융합한 특화 교육혁신 모델을 소개하고, 생명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체계와 전북지역 교육혁신의 방향을 제시했

며, 원광대가 위치한 익산에서 열린 전국 규모 학술대회에서 사례를 발표함으로써 지역과 대학의 상생협력 우수 모델을 보여줬다.

이어 전북도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해 17일부터 19일까지 전주에서 열린 '제19회 전북과학축전'에도 참여해 WON+PBL 교과를 수강 중인 창의공과대학 재학생들이 과학기술 체험 지원, 관람객 안내, 안전관리 등 재능기부 봉사 활동을 펼치며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다.

#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 체험

## '세계유산축전 고창갯벌' 첨단기술과 창의적 체험 결합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고창에서 열린 '2025 세계유산축전 고창갯벌'에서 첨단기술과 창의적 체험을 결합한 이색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을 맞이했다.

(재)한국의갯벌세계유산단체추진단(이하 갯벌추진단)은 '찾아가는 세계유산 - 한국의 갯벌 이야기'를 주제로 탐사보고장갯벌센터 내 고창갯벌 전시관에서 체험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체험 부스는 갯벌의 생태적·문화적 가치를 더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해양 폐기물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씨글라스 키링 만들기' ▲가상현실(VR)을 통해 갯벌의 생태를 탐험하는 'VR 갯벌 콘텐츠' ▲AI 생성형 프로그램을 이용해 생태 이미지를 디자인하는 '에코백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즐겼다.

'씨글라스 키링 만들기'는 해양 폐기물



을 재활용한 업사이클링 체험으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해 바다 쓰레기를 예술적 생활소품으로 재탄생시키는 활동이다. 갯벌추진단은 이를 통해 해양 환경 보전 인식 제고와 세계유산 보전의 지속 가능한 의미 확산을 기대했다.

VR 갯벌은 정물화와 저어새 서식지 탐험, 갯벌 상공비행 시뮬레이션 등 몰입형 체험을 통해 세계자연유산의 핵심 가치(OUV)를 생생히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서해 연안 특유의 다나간대 생태계와 멸종위기종의 생태환경을 간접적으로 탐험하며, 갯벌이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Ecosystem Services)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된다.

AI 프로그램을 활용한 에코백 제작도 눈길을 끌었다. 체험객이 직접 생성형 AI로 갯벌 생물을 디자인하고, 이를 즉석에서 프린트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기념품을 만들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갯벌추진단은 이러한 창의 융합형 콘텐츠가 "보전 메시지를 생활 속으로 확산시키는 전환형 홍보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갯벌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축제를 통해 방문객들이 단순히 관람을 넘어 직접 체험하고 창작하면서 갯벌의 가치와 환경보전의 의미를 느꼈을 것"이라며 "갯벌이 수많은 생명과 인간의 삶이 공존하는 소중한 자산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 전주중산신협 전호진 전무 '제80회 경찰의 날' 감사장 받아

전주중산신협은 '제80회 경찰의 날'을 맞아 전호진 전무가 전주완산경찰서로부터 범죄 예방과 지역사회 금융교육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그는 2020년부터 고령층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과 금융사기 예방 캠페인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20년에 한 고령 조합원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할 뻔한 사건을 계기로, 전호진 전무는 금융기관이 예금과 대출만을 다루는 곳이 아니라, 주민들의 경제적 안전망 역할을 해야한다고 심각하게 됐다. /박상래 기자

## 완주군·고령군 재향군인회, 영호남 화합 교류

### 화합사 방문, 석부작 만들기 체험

완주군재향군인회와 고령군재향군인회는 최근 완주군 일대에서 제73차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및 영호남 친선교류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양 지역 향군회원 간 우의를 다지고, 안보의식을 고취하며,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30여 년을 이어온 이번 행사는 양 지역 향군 간의 우정을 넘어 지역 간 화합과 상생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

행사에 앞서 참가자들은 완주군의 대표 문

화유산인 경천면 화암사를 탐방하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싱그러운 마을에서는 석부작 만들기 체험을 통해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힐링의 시간을 가지며 친목을 도모했다.

이후 열린 공식 기념식에는 유회대 군수가 참석해 노고를 격려하고 재향군인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유회대 완주군수는 "영호남 화합 행사는 지역 간 경계를 넘어 상생 발전하는 소중한 연결고리로 앞으로도 문화적 이해를 넓히고 경제적 협력을 강화해 군민이 행복한 완주군을 만들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상래 기자

## 익산시, 청소년과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익산시는 21일 전북제일고에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문화 확산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전북제일고를 포함해 지난 7월부터 이리남성여고, 이리북초 등 3개 학교 재학생 1,32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캠페인에는 익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교장 2명과 교내 도래상당자 20여 명, 학생회 2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등굣길에 직접 나서 학교폭력

가·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센터 홍보물품을 전달하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 확산 활동을 펼쳤다.

또한 도래상당자와 동아리 홍보를 병행해 학생들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서로를 지지할 수 있는 공감 문화를 조성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임규창 기자



## 전북에서 시애틀로, 책으로 잇는 국제교류

### 전북교육청-시애틀 한국교육원 K-독서문화 확산 북큐레이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미국 시애틀 한국교육원과 함께 지난 12~20일까지 세계 최대 독서서점인 포틀랜드 파월북스(Powell's Books)에서 '한국어 기반 북큐레이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한글날을 기념해 미국 현지 일반 시민과 한국어 교환·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학의 가치를 직접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세계 최대 독서서점인 파월북스에서 열린 북큐레이션은 미국 내 일반 독자들에게 한국문학의 깊이와 매력을 전하며 눈길을 끌었다.

특히 전북교육청이 추천한 도서 100선이 전시됐으며, 현장감을 찾은 방문객들은 전북

의 수석교사와 사서의 해설이 함께하는 한국어 수업·독서 문화 체험에 참여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한국어 기초 수업, 도서 낭독회, 독자와의 대화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미국 현지 교육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도 진행돼 한국어 교육 확대와 한미 교육 교류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기회가 됐다.

미국 현지 한국어 교사들은 "한국문학의 다양한 주제와 서정성을 통해 학생들이 다른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며 "학생들에게 우리 문화의 전통성과 우수성을 알리는 다양한 교수법을 수업에 적용해 보겠다"고 입을 모았다.

포틀랜드 파월북스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문학을 미국 독자에게 소개하는 뜻깊은 기회였다"며 향후 지속적인 교류 협력에 기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했다. /복정권 기자

## 한국체육학회, 전국체전 기념 학술대회

### 류민아 연구팀, AR 스마트클라이밍 논문 우수상

한국체육학회가 17~18일 부산대학교에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기념 제63회 한국체육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건강수명 연장 - 운동을 통한 체육계의 역할을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급속한 고령화와 높아지는 만성질환에 대응해 체육학계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학문적·실천적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이날 개최식에서 진행된 '2025 AR 스마트클라이밍 논문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류민아(전북대학교)·한태규(연세대학교)·도경민(경희대학교) 연구팀이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들은 'AR 스마트 클라이밍을 바라보는 두 개의 눈-전문가와 참여자 관점'이라는 연구 논문으로 눈길을 끌었다. 특히 류민아 연구원은 3년 연속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연거부 수상하는 기



염을 토해냈다. 한국체육학회 관계자는 "체육학이 단순한 연구 영역을 넘어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학술대회가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 체육계가 기여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정권 기자

## 전북농기원, '안전월동' 맥류 적기 파종 당부

최근 잦은 강우로 벼와 콩 수확이 늦어짐에 따라 전북농기원에서는 맥류의 안정생산을 위해 파종 시기 준수와 월동기 재배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맥류 안정생산의 기본 조건은 종자 관리와 적기 파종으로, 전년에 병해가 발생한 논이나 밭에서 수확한 종자나 외부에서 분양을 받은 종자는 반드시 종자소독을 철저히 해 종자로 전염되는 붉은곰팡이병, 감부기병, 줄무늬병 등 병해를 예

방해야 한다. 종자소독에 사용할 수 있는 약제는 카복신, 티람 분제 등이 있으며 파종 전 종자 표면에 고투 분도록 약 1kg당 2.5g 처리하면 효과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맥류 파종 적기는 10월 20일부터 다음달 5일 사이로, 추위가 시작되기 전에 식물체 높이 5~6cm 정도로 자라야 뿌리가 깊게 내려 추위에 견딜 수 있고 안전한 월동이 가능하므로 파종 적기 준수가 중요하다. /익산=고윤영 기자



## 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물관리 운영대의원 회의

### 스마트 물관리 강화 방안 논의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는 21일 지사 대회의실에서 장수군, 진안군, 무주군 관내 운영대의원 11명과 지사 물관리 관계자 등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운영대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사 주요 현안과 2025년도 중점 추진 업무를 공유하고, 지역 농어촌 발전을 위한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한 수자원 관리강화와 AI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물관리 실현 등 공사의 중점 추진 과제가 집중 논의 됐다.

무진장지사 물관리 중점 추진업무는 ▲급수 예보 서비스 개선 ▲농경지 침수방지 제도 개선 ▲사전 예방적 시설물관리 강화 ▲홍수기 저수지 수위관리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력 향상 ▲AI 기반 스마트 물관리 실현 ▲농어촌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등 7대 과제를 순회준 수자원관리 부장이 보고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농어촌 현상의 문제는 지자체와 공사, 주민이 함께 풀어야 한다고며 상생협력의 중요성과, 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위해 라른 슬로건 아래 지역 맞춤형 발전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장수=유기종 기자